

4월 건설경기 여전히 '흐림'

건설경기가 침체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8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올 4월 건설기업경기실사지수(CBSI)는 85.2에 그쳤다. 전월(81.6)보다 3.6포인트 올랐지만 지난해 12월(80.1)을 기점으로 5개월째 80선에 머물고 있다. CBSI는 일반 건설사업자의 경기 체감 수준을 판단하는 지표다. 기준선(100)을 밑돌수록 비관하는 기업이 많음을 의미한다.

연구원은 발주물량이 늘어난 계절적 요인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했지만 여전히 기준선을 하회하고 있는 정황상 회복 국면에 진입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분석했다. 윤종현기자